

차이를 존중하는 사람이 되자

〈강영준〉

안녕하세요, 국어과 교사 강영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차이를 존중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몇 달 전 공익광고에서 배기철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소개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광고의 멘트는 ‘안녕하세요. 배기철입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단지 피부색이 다를 뿐입니다. 자신들과 틀리다고 합니다.’라고 진행되고 있었고 흑백으로 처리된 화면에서는 혼혈인의 모습이 연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민등록이나 주소지는 모두 낯익은 한국의 지명으로 적혀있었습니다. 같은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의 눈빛에서 한결같이 어둡고 고생한 흔적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측은한 마음마저 들기까지 했지요. 광고의 마지막에는 ‘차이를 인정하면 차별 없는 세상을’ 꿈꿀 수 있다는 문구가 읽혀졌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같은 핏줄, 같은 언어, 같은 피부색, 그리고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함께 나누며

살아왔기 때문에 차이에 대해 너그럽지 못해 왔던 것 같습니다.

공동체의 윤리나 도덕, 일체감을 중요시하던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영향을 주기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나와 같지 않다.’는 까닭에 ‘너는 틀렸다.’라는 생각을 은연중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쉽사리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타협하지 못하면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는지 반성해봅시다. 아마도 넉넉하지 못했던 경제, 앞만 보고 추구했던 성장위주의 생활이 타인의 차이를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던 것은 아닐까요.

계몽철학자 볼테르는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의견을 말할 권리를 위해 싸우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채근담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한 걸음 양보하는 것이 오히려 높이 여김을 받는 길이 되며, 물러나는 것이 나아가는 밑천이 될 수 있다.’는 격언도 있습니다.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 미덕이 될 것입니다.

21세기는 이전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가치들이 서로 공존하게 될 것입니다. 유연한 사고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은 ‘나와 다른 차이’를 관용으로 받아들여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 진학한 여러분을 보십시오.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곳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만을 지나치게 앞세우거나 독단적인 생활을 한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 앞으로는 서로가 한 발자국 물러서서 상대의 입장과 견해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관용의 정신을 가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 8호>